

전상현 “내년 목표는 마무리로 마무리 하는 것”



KIA 4명 ‘프리미어 12’ 엔트리 합류

양현종·안치홍·문경찬·박찬호...KBO 60명 확정

2019 WBSC 프리미어12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의 예비엔트리 60명이 확정됐다.

KBO는 3일 투수 28명, 포수 5명, 내야수 15명, 외야수 12명 등 총 60명으로 예비엔트리를 구성하고, 이를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에 제출했다.

KIA타이거즈에서는 에이스양현종과 마무리문경찬, 타선의 중심안치홍, 도루 1위 박찬호 등 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지만(탬파베이)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최근 각 팀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의 프리미어 12 참가를 불허했다.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오지환(LG)과 박해민(삼성)도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1차 90인에 포함됐던 두 사람은 논란 속 성적 부진으로 60인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김경문 감독이 강조한 ‘신구조화’가 예비엔트리에서 드러났다.

양현종을 필두로 투수 김광현(SK), 포수 양의지(NC), 내야수 박병호(키움), 내야수 최정(SK), 외야수 김현수(LG) 등 KBO리그의 쟁쟁한 선수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올 시즌 KIA의 ‘깜짝 스타’가 된 내야수 박찬호와 함께 마운드에서 ‘고졸 투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정우영(LG), 원태인(삼성)과 서준원(롯데) 등 신예 선수들도 대거 예비엔트리에 포함됐다.

‘김경문호’는 이번 대회에서 2020 도쿄 올림픽 출전권 확보와 대회 2연패를 노린다.

한국은 오는 11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쿠바, 캐나다, 호주와의 조별리그를 치른다. 조 2위 안에 들면 6개국 대결하는 슈퍼라운드 진출하게 된다.

또 주최국 일본을 제외한 대만, 호주보다 나은 성적으로 대회 6위 안에 들면 아시아-오세아니아 대표 자격으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퓨처스리그 방어율·다승 ‘2관왕’ 목직한 직구·변화구...올 KIA 필승조 맹활약 “중요한 건 마음...할 수 있다 자신감 생겨”

자신감을 채운 KIA 타이거즈의 전상현이 2020시즌 더 높은 자리를 올려본다. 전상현은 올 시즌 박준표와 함께 ‘예비역 듀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KIA 마운드의 새 얼굴이자 희망이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했던 지난 시즌 전상현은 퓨처스리그 평균자책점(3.06), 다승(13승) 부문 2관왕을 차지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팔꿈치가 좋지 않아 복귀 준비에 제동이 걸렸던 전상현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고, 개막 엔트리에도 들지 못했다.

4월 24일 1군에 처음 합류한 전상현은 이내 자신의 입지를 넓이면서 필승조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반기 막바지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전상현은 다시 위력적인 공을 던지면서 팀의 믿음직한 필승조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장점인 컨트롤을 바탕으로 상대의 무릎을 파고드는 목직하고 예리한 직구로 허를 찌르고, 무섭게 떨어지는 변화구로 상대 방망이를 헛돌게 하고 있다.

“마음”을 바꾼 게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상현은 “시즌 처음에 잘 났을 때는 아무 생각 안하고 자신감으로 했는데, 안 났을 때는 피하려고 하고 스스로 어렵게 만드니까 그랬던 것 같다”며 “두려움이 있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좋지 못했다.

지금에 자신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발로 주로 뛰어왔던 전상현에게 올 시즌은 변화와 도전의 시즌이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시즌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야구를 배워가고 있다.

전상현은 “자신 있게 던지자고 마음먹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중간 투수는 멘탈이나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에 앞서 전상현은 ‘스피드’라는 새로운 무기를 더하면서 한 단계 성장했다.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하체 운동에 신경 쓰면서 노력을 한 게 놀라운 스피드 향상으로 이어졌다. 스피드가 더해지면서 전상현의 꿈도 커졌다. 많은 투수들은 ‘선발’을 목표로 이야기하지만 전상현의 오랜 꿈은 ‘마무리’다. 확장시절 그의 롤모델도 ‘돌부처’ 오승환(삼성)이었다.

“당연히 투수니까 선발 욕심은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켜 주신다면 감사하다”며 웃은 전상현은 “그

런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마무리였다. 굳이 꼽자면 마무리에 도전하고 싶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예전에는 막연한 꿈이었지만 올 시즌을 통해서 전상현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전상현은 “어렸을 때는 꿈만 마무리였다. 현실은 스피드가 안 나오니까 마무리 할 수 있는 구위가 아니었다. 꿈은 마무리였지만 현실적으로 선발을 생각했다”며 “올 시즌 스피드도 많이 늘고 다시 욕심이 생겼다”고 꿈을 밝혔다.

선발로 오랜 시간 뛰어온 전상현은 상무에서 퓨처스리그 2관왕을 이뤘고, 올 시즌에는 KIA 불펜에서 필승조로 맹활약하고 있다. 그만큼 전상현의 활용도는 높다.

올 시즌 자신감에 경험이라는 특별한 무기까지 더한 전상현은 남은 시즌과 2020시즌 마운드를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

개인 시즌 최다 홈런 타이 -1...양키스, 221경기만에 영패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21호 홈런을 작렬했다.

추신수는 3일 뉴욕양키스스타디움에서 뉴욕 양키스와 벌인 2019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1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 6-0으로 앞선 9회 초 선두 타자로 나와 솔로 홈런을 날렸다.

추신수는 양키스 불펜 타일러 라이언스의 5구째 시속 130km(80.5마일)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중월 담장 위를 넘겼다.

추신수는 지난달 19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시즌 20호 홈런을 치면서 개인 통산 처음으로 3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이제 홈런 1개를 더 추가하면 개인 시즌 최다 홈런 타이틀을 이룬다. 추신수는 2010, 2015, 2017년에 한 시즌 개인 최다인 22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의 썩기 홈런으로 텍사스는 양키스에 7-0 완승했다.

추신수는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

득점 2삼진으로 활약했다.

추신수는 1회 초 타석에서는 유격수 망블로 잡혔지만, 1-0으로 앞선 3회 초 선두타자로 나와 양키스의 일본인 선발 투수인 다나카 마사히로를 상대로 2루타를 작렬했다. 5회 초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7회 초에도 루킹 삼진을 당했다. 그리고 9회 초 선두타자로 나온 추신수의 솔로 홈런이 터졌다.

한편 양키스는 지난해 6월 30일 보스턴 레드삭스에 0-11로 무릎을 꿇은 이래 221경기 만에 영패를 당했다.

보스턴전 영패 다음 경기부터 220경기 연속 최소 1점 이상을 기록하다가 이날 텍사스 마운드에 막혀 연속 경기 ‘무(無) 영패’ 기록을 중단했다. 이는 1900년대 이후 양키스가 1931~1933년 남긴 308경기 연속 ‘무 영패’를 잇는 역대 이 부문 2위 기록이다.

/연합뉴스

올 가을 세계 ‘골프 별’ 들 한국에 뜬다

10월 제주 PGA 더 CJ컵

켄카·미켈슨·최경주 등 메이저 우승자들 대거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차세대 선두주자’로 꼽히는 조던 스피스와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가 10월 제주도에 열리는 PGA 투어 더 CJ컵(총상금 975만달러)에 출전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3일 서울 CGV 청담네시티에서 더 CJ컵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올해 대회에 출전할 주요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 우승자 브룩스 켈퍼와 베테랑 필 미켈슨(이상 미국)의 출전이 확정된 가운데 이날 스피스와 토머스,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제이슨 데이(호주), 패트릭 리드, 게리 우들랜드(이상 미국),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등의 출전이 확정됐다.

메이저 3승을 거둔 스피스는 2017년 창설된 이 대회에 처음 나온다. 2015년



프레이저던즈컵 이후 4년 만에 한국 팬들과 다시 만나는 스피스는 “제주도 바람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년 연속 한국 팬들과 만나는 초대 챔피언 토머스는 “더 CJ컵 우승 트로피가 서재에 있는데 우승 트로피를 하나 더 놓고 싶다”고 패권 탈환 의지를 내비쳤다.

2017년과 2018년 마스터스 우승자 가르시아와 리드, 올해 US오픈 챔피언 우들랜드 등 ‘메이저 우승자’들이 대거 제주를 찾는다.

PGA 투어에서 통산 8승을 거둔 최경주도 2년 만에 다시 이 대회에 나온다. 2020년부터 PGA 챔피언십투어 출전 자격을 얻는 최경주는 이번 대회를 통해 PGA 투어 정규 대회 국내 고별전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올해 PGA 투어 신인상 후보로 거론되는 임성재와 콜린 모리카와, 매슈 윌슨(이상 미국)도 경쟁을 이어간다. 이번 대회는 10월 17일부터 나흘간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10월 인천 하나금융 챔피언십

고진영·리디아 고·이민지 등 상금 15억...KLPGA 최대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해 국내·외 투어 강자들이 대거 출전한다.

하나금융그룹은 3일 “올해 대회에 고진영과 리디아 고(뉴질랜드), 대니엘 강(미국), 이민지(호주) 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회는 10월 3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키야72 골프장 오션코스에서 열린다.

지난해까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으로 열린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올해 KLPGA 투어로 진행되며 총상금 15억원으로 KLPGA 투어 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뉴 비기닝, 뉴 챌린지(New Beginning, New Challeng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아시아 시장을 세계 골프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초석을 쌓겠다는 취지를 밝힌 이번 대회는 아시아 신예 선수 10명을 초청했다.

2일 끝난 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준우승한 재미교포 노예림을 비롯해 수이상(중국), 사소 유키(필리핀), 빠리다 포칸(태국) 등이 이번 대회에 나온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양희영, 이미향, 엘리스 리 등도 출전하고 KLPGA 투어 2019시즌 최강자 최혜진과 대상 포인트 1위 박재윤 등이 ‘국내파’의 선봉에 선다.

전체 108명 선수 가운데 KLPGA 투어 상위 60명, 남은 48명은 해외 및 초청 선수 몫으로 분배됐다.

가수 보아가 이번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18번 홀에 ‘하나 라운지’를 설치해 선수들과 갤러리를 맞이한다.

/연합뉴스